

News

4월 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30%...3월 대비 0.02%p ↑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0%로 집계.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월 말에 비하면 0.10%포인트 하락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달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달 대비 0.01% 상승

금융지주, 한국형 뉴딜펀드 직접투자 허용

e대한경제

금융당국이 그동안 순수지주회사로만 머물러야 했던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사업지주회사처럼 자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벤처캐피탈과 함께 디지털·데이터산업 등 제4차 산업혁명 산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 대출 조이기에... 저금리대출 비중 올들어 10%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의 금리별 비중을 살펴보면 금리가 가장 낮은 구간의 비중이 올해 초부터 점점 축소
KB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신용대출 중 4% 미만의 비중이 87%에 달했는데 이 비중이 계속 감소해 지난 4월 77%까지 하락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조정안 수용했지만... '배상비율' 놓고 진통 여전

아주경제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와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에 대해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외부기관 심사 통과한 금융 상품만 팔겠다"... 미래에셋 '소비자 우선' 선언

동아일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16일 '고객동행 실천 선언식'을 열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만 팔겠다. 미래에셋이 만든 상품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이 그동안 판매하던 공모펀드 1,280개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한투증권 "문제 생긴 사모펀드, 전액 보상"

동아일보

한국투자증권이 판매 책임 논란이 불거진 사모펀드 10개에 대해 고객 투자금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등 10개. 10개 펀드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 원이다. 일부 펀드는 이미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남은 보상액은 약 805억 원으로 추산

'10만 배달운전자', 보험가입률 1%..금융당국, 사각지대 손본다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은 10만명에 달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배달 운전자(이하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제도와 상품을 손본다.
사고율은 개인용 차량 대비 2배 이상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1%가 채 되지 않아서다.

DB손해보험, 토스와 손잡고 '백신보험' 판매한다

머니S

DB손해보험이 내달부터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험을 판매
다음달 1일 출시하는 백신보험은 토스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DB손해보험과 토스는 지난 5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